

#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이 핵심”

### 노사민정 협의회 5기 출범...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강조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들이 20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인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들은 ‘노사상생’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20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5기 노사민정 협의회 출범회의에서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광주형 일

자리 4대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적정인건,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화청 관계 개선 등이다.

윤 의장은 “4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게 노사상생경영”이라며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고 노동계와 신설법인

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 과연 성공할까 불을표를 제기했다”며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 5기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불을표가 마침표로 바뀔지 바란다”고 강조

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에 많은 기대와 우려, 관심을 갖고 있다”며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없어 굉장히 아쉽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원칙과 철학을 반드시 우선시 해 광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도 사회적 합의와 노사상생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패를 가늠하는 시점이 노사민정 협의회”라며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논의될 때 그야말로 실현이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었지만 광주 시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며 “투자하는 36개 기업의 투자 결단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반드시 노사민정 협의회 협력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 김영록 지사 “전남블루 이코노미 성과내야”

“대통령 경축사 언급 관심 집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환황해경제는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전남의 새 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블루이코노미는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청색의 천연자원을 활용해 미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라며 “자체 TF팀을 구성해 6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6대 프로젝트는 에너지산업 수도를 목표로 하는 ‘블루 에너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한 ‘블루 투어’, 첨단 의료산업인 ‘블루 바이오’, 미래형 운송기

산업의 중심인 ‘블루 트랜스포트’, 은퇴없는 신도시를 만드는 ‘블루 시티’와 전국 비교우위에 있는 ‘블루 농수산’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과의 관광 왕래가 줄어든 것과 관련,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100만 명 유치 목표를 위해 운항 노선의 국가별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중국 주광주 총영사께서 최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를 코레일 할인상품과 연계해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굵직한 SOC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SOC 예산, R&D 사업 확보, 각종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도 노력해줄지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 광주 송정~나주시계 5.7km 구간 완전 개통

광주시는 20일 국도 13호선 송정1교에서 평등산단 입구사거리, 국지도 49호선 분덕 교차로를 거쳐 나주시계까지 기존 4차로(5.7km 구간)를 6차로로 확장해 개통했다.

이날 완전 개통된 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도교통부에서 총사업비 718억원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대도시권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확장 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 수립된 국도교통부의 제1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국비지원 광역도로 사업으로 확정됐고, 광주시는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번 광역도로 사업 준공으로 KTX 광주송정역과 평등, 1, 2, 3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주 광산구 송정권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연계하는 광역도로교통망이 보다 편리하게 정비됐다.

시는 광주와 전남과의 물류비 절감과 교통 혼잡완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기업과 각종 개발지구의 사회·경제적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송정1교~나주시계 5.7km 구간이 20일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개통됐다

시는 이와 함께 송정권 도심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정1교~광주공항~무진로 구간 6.25km 4차로 도로 개설도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광역도로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고 광주와 인근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동기를 부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 광역도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급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 동명동 만든다

광주 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며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끈다.

동구는 20일 동명동 ‘아이플러스(I-PL EX) 광주’에서 동명동 건물주와 참가인인 간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건물주, 참가인,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의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동지 내몰림 없는 동명동 거리를 만들기로서 뜻을 모으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생상가 현판도 전달됐다.

동명동 건물주 30명과 참가인인 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 6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결실로 동명동 상권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구, EM활성액 홍보를 통한 환경보전 앞장

광주 서구가 EM활성액 홍보를 통한 환경보전 사업을 연중 추진중에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M효소는 유용한 미생물로 불속의 유해한 미생물을 유익한 미생물로 바꿔 수질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에, 서구는 매년 4, 6, 10, 12월 관내 18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EM활성액과 사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물의 날, 환경의 날 등 각종 기념·행사일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쌍학어린이공원(쌍촌동)과 콩콩어린이공원(화정동)에 EM 배부형크를 설치해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성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남구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35명 선발해요”

광주 남구는 20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22회 남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제)남구 장학회는 고교생 10명과 대학생 25명 총 35명을 선발해 장학금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고교생에게는 50만원, 대학생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남구청 7층 교육지원과 내 (제)남구장학회 사무국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 북구, 참여와 소통으로 생활속 청렴문화 확산

광주 북구가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생활 속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실천의지 강화를 위해 ‘공직자 청렴특강’, ‘추석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오는 23일에는 부서별 청렴실천리더 등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동령비서실 민행태 사회정책비서관을 초청해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렴과 투명,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공 키워드’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함양과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기준과 현 정부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대한 사회정책의 방향 등이다.

##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온라인 주민투표

광산구가 30일까지 내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소통하는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것이다.

투표는 광산구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선택지에는 ▲동네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등 생활 관련 지역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들이 나열돼있다.

투표참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실문조사’란에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들의 취지·내용 등을 살핀 뒤,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단, 다른 동 사업 선택과 중복투표는 할 수 없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